

생보사 댄친 어닝쇼크, 순익 24% ↓... '빅3'는 36% 급감

〈올해 1~3분기〉

〈삼성·한화·교보〉

금감원, 생보사 경영실적 잠정치 발표
저축성보험 만기도래, 해약증가 영향
보험영업부문 18조457억 손실 발생

올해 1~3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3' 대형사의 순이익은 36.4%나 줄었다.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해약 증가로 지급보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감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9년 1~3분기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3조573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84억원)보다 9811억원(24.3%) 감소했다.

보험영업부문에서 18조457억원 손실이, 투자영업부문에서 18조6678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생보사 순익 현황〉

구분	'17.1~3Q	'18.1~3Q(A)	'19.1~3Q(B)	증감 (B-A)	
				증감	증감률
당기순이익	38,093	40,384	30,573	△9,811	△24.3
보험영업이익	△155,909	△168,702	△180,457	△11,755	△7.0
보험손익 (책임준비금전입액)	92,757	7,670	△31,369	△39,039	손실전환
-248,666	-176,372	-149,088	△27,284	△15.5	
투자영업이익	170,692	185,143	186,678	1,535	0.8
영업외이익	34,515	37,673	33,621	△4,052	△10.8
법인세비용	11,205	13,730	9,269	△4,461	△32.5

단위: 억원, %

/금융감독원

보험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조1755억원(7%) 확대된 것은 저축성보험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수입보험료가 396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해약과 만기보험금이 늘면서 지급보험금이 4조191억원 증가하면서 보험손익은 3조9039억원 줄고, 책임준비금전입액도 2조7284억원 감소한 것이다.

투자이익은 전년도 주식매각차의 1조1000억원 기저효과로 인해 이익 증가율이 0.8%에 그쳤다. 또 이자·배당수익과 외화 관련 이익은 각각 5000억원 늘고, 채권 등 자산처분이익은 6000억원 늘었다. 영업외이익은 변액보험 수입수수료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052억원(10.8%) 감소했다.

순이익 감소는 대형사와 외국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사와 외국계는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각각 36.4%, 1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형사와 은행계는 순이익이 각각 3.7%, 25.7% 증가했다.

1~3분기 수입보험료는 78조1791억원으로 전년 동기(77조8939억원) 대비 2852억원(0.4%) 증가했다.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조2650억원 증가한 반

면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1조2252억원, 9653억원 감소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905조원으로 전년 동기말(851조원)보다 54조원(6.3%) 증가했다. 신계약 성장 둔화로 부채(책임준비금 등)는 38조6000억원(5.0%) 증가한 반면 자기자본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13조3000억원 확대하면서 15조1000억원(20.7%)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과거와 같은 수입 보험료 성장 중심의 경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소비자 보장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개발 과정에서부터 민원·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영업 효율화, 리스크 중심 경영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금감원, 기관제재 대신 MOU·확약서 제출

대상요건 구체화, 내부협의체 운영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 보완·개선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기관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자율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감독원은 지난달 5개 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대신에 MOU 체결·확약서 제출요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규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시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기관제재에 갈음해 MOU·확약서 등 대체 조치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는 이미 지난 2016년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기관제재 갈음 MOU 등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요건을 구체화하고, 내부협의체를 운영해 처리방향을 신속히 결정토록 했다"며 "금융회사가 양해각서·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책임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은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면서 일부 고객의 소액분할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담당자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의 수준으로 갖추지 않아 일부 고객들이 이를 악용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회피했다.

1개 은행은 '기관경고', 나머지 4개 은행은 '기관주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각각 '기관경고' 같은 양해각서 체결, '기관주의' 같은 확약서 제출요구로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분할 송금거래 관련 은행의 의무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소액분할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저축銀 누적순익, 수도권 '웃고' 지방 '울상'

수도권 銀

역대 최대 실적, 평균 33.9% ↑

지방 銀

일각서 영업구역 제한 완화 지적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순이익이 대부분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수도권 저축은행(SBI·OK·웰컴·유진·JT·진에)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평균 33.9%가 증가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562억원에 달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돌파했다. 2위인 OK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도 747억378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두 곳 모두 대출 영업이 확대되면서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SBI저축은행은 올 3분기에 2046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27.2% 늘어난 수치다. 2위인 O



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은 지난해 3분기 1754억98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2256억9700만원으로 28.6% 증가했다.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지난해보다 일제히 순이익이 늘었다. 유진·웰컴·JT·진에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1.8%, 58.3%, 65.7%가 증가했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크게 늘어난 점이 순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지방 저축은행의 3분기 실적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4%가 감소했다. 지역 산업 경기가 하락하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의 대출 이자 수

익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들은 지방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30~50%로 묶인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을 대출 유형에 따라 완화시키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방 저축은행들이 규제받고 있는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대로라면, 경기 악화로 연체 리스크가 커진 산업체에까지 억지로 대출을 진행해 오히려 연체율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개인 신용대출에서만이라도 의무 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현재 상황과 맞는 조치"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농협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농협은행 김인태 마케팅부문 부행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銀行, '2019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수상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농촌지역 환경 개

선을 위한 영농페비닐 수거지원 사업 실시 ▲자연재해 복구를 통한 지역사회 재건 동참 ▲지역주민을 위한 무더위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상미 기자

NH농협銀行, 총상금 1400만원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공모전' 성황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점에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2019년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대학(원)생과 성인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올바른 금융투자상품 가입 방법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3가지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영상들이 다수 출품됐다.



NH농협은행 서울성 금융소비자보호부 부행장(첫째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이은희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첫째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2019년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에서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모전 수상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상을 비롯해 총 상금 1400만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농협은행의 공식 SNS계정

에 업로드해 금융소비자보호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며, 전국 학교에도 금융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